朝鮮日報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光武新聞紙法 取消動議는廢棄
七項目이言論自由限界
金公報處次長·議員間質議

四日의國會第十二次會議는 上午十時半中議長司會로開議, 言論自由保障에關한 緊急動議의件을上程, 金炯元公報處次長과 言論關係에關한質疑應答이있은後 徐容吉議員等의緊急動議案을採決하여 [illegible]

△金秉會議員=(一)政府樹立後新聞·通信等停刊處分當한數는얼마나되는가 (二)日帝時의光武新聞紙法을適用함은不當하지않은가 (三)七個條禁止事項示達에對한法的根據는如何 (四)反國家的記事云云에對한 (五)政府에言論政策은무엇인가 (六)서울신문을反國家的으로規定하고停刊시켰으니 言論政策을是正할用意는없는가

△金公報處次長答辯=(一)現政府의言論政策에關하여는 [illegible]

來週一·二分委
天安補選狀況을視察豫定

保健·公報、部處長
具、李兩氏에正式發令

李大統領은 四日正午 新設保健部長官에 具永淑氏를 公報處長에 李哲源氏를 任命하고 公報處를通하여 다음과같이正式發表하였다

公報處長 金東成
依願免本官
公報處長 李哲源
任國務委員 具永淑
補保健部長官

法務次官辭任

伯林行政에 合意는可望

申議長等五議員 傷痍軍人을慰問

美蘇提案을討議
四相秘密會議續開

四相會議後에
애長官獨逸을訪問

무大使、國會議長招待

示威、善後策을建議
李大統領、眞相調査를示達

孔駐佛代理公使 十二日赴任豫定

對日船舶返還要求에
六日、交涉使節團을派遣

對極東政策 過誤를是正
美예議員强調

希內亂調停開始
美英代表交涉中?

靑島無血陷落
美艦도數日前撤退

中共承認問題 英態度觀望的

對日賠償中止에 新西蘭서도關心

莫府서歸國途中 土外交使節絶命

트란스욜단王國 하슈미에로改名

美·英商船 上海航路再開

白崇禧軍 長沙撤退

對中共、共同策 美·比間에協議

小卅「유·엔」과無接觸

파·아關係惡化

英經濟事情逼迫
對美金融關係變更?

美女大使 任命考慮

國際小麥協定을 美上院外委承認

東京都電罷業 大學生도休校

카토릭敎會 蘇政府管理

政府人事
任警務官 補鐵道警察隊長 金起政

經濟界
援助資金殘餘分의使用計劃

人絹糸輸入査定價格을變更

去來停止 (六月一日分)

八面鋒

社說
言論自由와 憲法上解釋

大韓民國憲法第十三條에依하면 「모든國民은法律에依하지않고는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自由를 制限받지아니한다」고 [illegible]

東寶化粧品
優秀한技術과 莫大한資本으로 計劃生産하므로 低廉하고 훌륭한商品을 提供하오니 試驗하여보시고 不滿하시면 買上하신商店에 返還하시요 責任지고 引受합니다
東寶 養毛토닉 / 東寶 바니싱크림 / 東寶 콜드크림 / 東寶 크린싱크림
東寶 로-숑 / 東寶 化粧水 / 東寶 水白粉 / 東寶 乳液
東寶 香油 / 東寶 頭髮香水 / 東寶 香水
類似品에속지마시고 東寶로指名하시요
全國有名化粧品店藥房에있음
和信 東和百貨店化粧品部에 特設販賣中

新聞學院 一九四九年度 男女學生募集
本學院特色
▲新時代의新聞記者를爲하는靑年學徒를基礎로하여 專門的인理論과 敎授를兼하야 新聞學의最高學府
▲政治 外交 言論 宣傳方面에 또는 放送 文化 雜誌 出版 其他 事業에 뜻을 두는 靑年學徒를 爲하야 短期間에 敎授
募集要項
(1)本科(二年制) 第一學年(夜) 五〇名 第二學年(晝) 補缺若干
(2)專修科(一年制)
▲志願資格 大學專門卒業者又는同高級學年修了者
▲試驗期日 六月二十八日부터
▲願書接受 六月二十五日까지
詳細來問……서울 朝鮮 新聞學院 敎務處

中央大學 男女學生募集
募集人員
◎法文學部 文學科 一年 (國文學·英文學專攻) 男·女各 四〇名
敎育學科 一年 (敎育學·心理學專攻) 四〇名
法政學科 一年 (法學·政治學專攻) 四〇名
◎商經學部 商學科 一年 四〇名 / 經濟學科 一年 四〇名
※第二學年 各科 若干名
二、試驗期日 六月廿一日午前九時施行
三、出願期日 五月二十五日부터 六月十八日까지
◎詳細한것은本大學敎務處에問議할것 但郵便問議時는用紙代及返信料壹百貳拾圓을要함
서울市永登浦區黑石洞二二一
中央大學 電話龍山④一六九〇番

南山醫院 內科 外科 眼科 小兒科 婦人科 肺結核 性病 急性 腎臟炎 肋膜炎 腹膜炎
院長 金五男

痔疾專門 姜明宣 肛門科
脫黨聲明書

吳元錫醫院 皮膚·泌尿·性病科 서울市安國洞네거리 電話光(3)二三三一番

蜂蜜都賣 蜂蜜機具散賣 만나養蜂園 電話東局(5)二〇八五番

技術·迅速·信用本位 暖房裝置 蒸氣機關 水利水道 一般鐵材 工事請負 株式會社 鮮榮工務店 서울市中區南大門路五街一五 電話本局(2)八四二七番

서울各中學入試

一·二回試驗校別決定

어린가슴을조이든 각중등학교 입학기가 금번에는 예년과다른 가락처와 문교부발표로 되었는데 서울시학무국에서는 四일각학교시험기일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二회수험을할수있으나 제一회합격자는 제二회수험의기회를 주지않기로되었다

▲男子中學校 第一回選拔校

▲第一回 八月二十日—二十三日까지

▲男子中學校 서울工 京畿工 城東工 서울農 京畿商 德壽商 善隣商 京電工 鐵道工 白南工 京商工 朝鮮工 京商工 大東商 東國工 光新商 朝陽中 明文商 永登浦工 東洋工 崇文 中濟工 (以上二十二校)

▲女子中學 京城商 文理 東丘 永 女商 京畿女 第二女師 三女 淑明女 梨花女 培花女 德成女 誠信女 (以上十四校)

▲第二回 八月二十五日—二十八日까지 殘余中等學校全部

問題의 留宿申告制 四日부터 遂實施

그간 그 실시를 앞두고 여론이 분분하던 유숙계(留宿)는 드디어 四일부터 공포실시키로되어 동연 다음과같은 「서울시유숙계신고규정」이 반포되었다

留宿申告規程

第一條 서울市의 治安을 確保하기 爲하여 留宿申告制를 實施한다

第二條 本令은 서울市區域에 適用한다

第三條 本令에 班員이라함은 班內에 居住하는 家族및寄留者를말하며 留宿者라함은 班籍이 없는 者로서 留宿하는 者를말한다

第四條 家口主는 自己住居內에 十六歲以上 六十歲以下의 留宿者가 있을때에는 左의 事項을 卽時 所轄班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但 警察署長이 認定하는 境遇에는 此限에 不在함

一、本籍 住所 姓名 職業年齡

二、留宿者는 留宿期間

三、到着 年月日時

四、留宿豫定日數

第五條 班長은 班內家口主로부터 前條의 申告를 받을때에는 卽時 所轄警察支署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六條 班長은 班內事情을 把握하기 爲하여 隨時 班員家庭을 訪問할수있다

第七條 班、警察支署및 警察官派出所에는 第一號 書式에 依한 班員名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第八條 本令實施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警察官署에서 定한다

附則 本令은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殉國將兵慰靈祭

六日서울運動場에서擧行

조국광복을 위하여 싸우다 쓰러진 三八선을 지키다 순국한 장병의 합동위령제는 六일 오전十시에 서울운동장에서 거행하기로 되었다

各職場에서 一齊히默念하자

尹市長談

서울시에서는 인구에 비하여 ... [illegible]

教育法案을 새로作成

入試日은 六月末로 建議

國會側文教專門委員會서決定

八월二십일에 중등학교 입학시험을 치르게 된 문교부의 계획에 대하여 국회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아동들의 시험기일을 六월말로 하기로 되었다 ... [illegible]

빛나는 偉勳 받들자 遺志

六月六日에 合同慰靈祭

金警察局長談

主動은 無賴漢

特委襲擊事件發表

지난三월 수백명의군중이 특위중앙사무국을습격한 사건에 대하여 그진상을 조사중이든 ... [illegible]

特委에 脅迫狀

【光州】반민특위 전남조사부에 지난 一일 『생명을 내걸라』 ... [illegible]

偽造車票橫行

車費가 빗싸진탓인가

南武鎬에 七年停權을 言渡

反民特裁

反·朴舜琰에 十年停權求刑

患者가 廿五萬

肝「디스토마」가 蔓延

三八線軍警慰問 慰安品을募集中

陸軍無電通信校 第五期卒業式

李命求氏釋放

今日小說休載

團体動靜

實業蹴球閉幕 京電捷勝

올는

수 맡의 산방

동천왕에 위나라의 왁은 올과해지 五〇년쯤 ᄀ나서 입니다 그때 고구려왕인 봉상왕은 마음이 나쁜왕이 되어 자기의동생을 시기한 남아지 고만죽이고 말았읍니다 그런데 죽은왕의동생에 올불이라는 아들이 있었읍니다 이고약한 왕은이번엔그올불을 마저죽일려고하였더랍니다 어눈치를 챈올불은 재빨리봉상왕앞에서도망을 가게되었읍니다그리하여 올불은 남의집에고용을 살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나 주인역시 마음이때때 올불은 일년후엔마그곳에 있을수가없게 되어이번엔 소금장사를시작하기로하였읍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여간 한고생사리가 아니었읍니다 한번은 압록강가에서 어떤심술사나운 노파를맞나소금한말을 팔았더랍니다 다음올불은 노파가 청하는대로덤을 주었읍니다만노파는한없이 더달라고투정을하고 그러저럭하다가싸움이되었읍니다 그러나올불은길게싸우ᄌ않고 소금접을때고 그곳을 떠났읍니다

그러자 얼마안가서 올불은 ⁄저 도작놈잡아라⁄하는 소리를 듣뀌아들였읍니다 물론노파오 올불은 무슨 영문인줄을 몰랐읍니다 그러나 노파는 잡람재하고 올불을 관청으로 끌고 갔읍니다 그리고는

⁄이사람이 남의 신발을 훔쳤읍니다⁄

하는것이었읍니다 그야 올불이 그런 짓을하였을리 없읍니다

그래도 노파는 [illegible] 관원에게 올불의 짐을 보아달라고하였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일까요? 그짐속에는 노파의 신이 들어있었읍니다

(이것은 노파가 올불을 골탕하고 몰래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올불은 무엇이라고 변명을 하ᄌ못하게 되고말았읍니다 그래서 소금을 앗기고 매를맞게 되었읍니다

그리하여 소금섬을빼긴 올불은 누가보아 왕의아들이라고는 생각조차할 만치 아주 거지꼴이되어 가지고정승대하고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읍니다

그러고 얼마후입니다 올불은 하루는 어떤강가에서 우연히 그때의 대신인 창조리라는 사람의신하들맞나게 되었읍니다 그 사람은 거지같아된 왕을 붙들고 반가워 어찌할줄을 몰라했읍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봉상왕이 ᄌ나치게 나쁜짓을 하고 쫓겨가서 올불을 세워므로 맞알라고찾이며 단였드란말을 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올불은 그시로 대궐로 돌아가왕이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고구려 미천왕(美川王)이십니다 그때가 단기2633이였읍니다

동요

개고리

이석환

예기별이 꿈박꿈박 눈을 뜨면은
잣달라고 우리애기 울고 보채다
개골개골 자장가에 잠이 든단다

장다ᄀ밭 노랑꽃에 해가 비치면
노랑나비 흰나비야 춤을 추어라
개골개골 개고리가 장단 마춘다

욕심장이와 샘꾸러기

장·모레이스

옛날옛적일입다 나쁜일만 하면서 재비면두동무가살고있었읍니다 한사람은 이 이상더말할수없이 자기보다 나은것을미워만 하는 샘꾸러기였읍니다。다른한사람은무슨 일에든지 만족하다고는 생각지 않는 욕심장이였읍니다。

그런데 어느날이샘꾸러기와욕심장이가 말을타고 가다가 어떤훌륭한 한분의성인(聖人)을 맞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성인은어떤 일이든지 짐작할수가있기때문에 두사람이 다나쁜 마음을 가ᄌ고있는 것을알고 잠깐 두사람과 함께 걸어 볼려고생각하였읍니다。

성인은 꼭 나쁜 놈들과 꼭 가깝게 사귀고, 여러가ᄌ로 세상 형편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커다란 절(寺)앞에 이르렀읍니다。그때 성인은할께은 두 사람께 다음과같이 말씀하였읍니다。

『자 그럼 나는 저 절로 갈려고 하니 여기서 너희들과 헤어져야 하겠어。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귀ᄂ 기념으로, 나는 너희들께 무엇이든ᄌ 희망하는 것을할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누구든ᄌ 좋ᄂ니 희망이 있ᄂ면 말해보게。 큰 하나님께저 내려 [illegible] 주시ᄀ도 내가 주각해줄것네。그러나, 아무말도하ᄌ 않는 사람에게는、이편쪽의 두 배(倍)를 줄것이다。』

성인은 이렇게 말해두고 절로 들어가버렸읍니다。

가기서 욕심장이는 하여튼 내가 먼저입을열어서는손해다 마즌편놈께말시켜놓고 나는 저놈의 두배를 가져야하겠다고 생각하였읍니다。그래서 그는 말하였읍니다。

『어떻냐 네가 청구하면 좋ᄌ 않느냐。달라는것은 무엇이든ᄌ 주신다는데。내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을때까ᄌ 부자가 될수 있는것이 아니냐。』

그러나 샘꾸러기는 자기부터 먼저 청구하는것을 승락하ᄌ 않았읍니다。어쨋든 마즌편놈이 자기두 배를 가ᄌ게 된다고 생각하니 미워서 죽을지경입니다。

그래서 두사람은 오랫동안 아무청구도 하질않았읍니다。

끝끝내 욕심장이는 아주 화를내며 샘꾸러기한테 말을 하였읍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을 거다리고 있느냐。하여든 나는 너의 두배는 가져야 되겠다。자아 어서 너부텀 청구해라。그렇ᄌ 않으면 말(馬)보다도 지독하게 혼을 낼테야』

『응 청구하지。청구하겠어。너한테 맞는것보다는 그것이 좋으니깐。그런데 돈이라든ᄀ 보물을 청구하면 너는나의 배를갖게될터이니깐。그것이 미워준 [illegible] 또 그렇게 거저먹게는 않할것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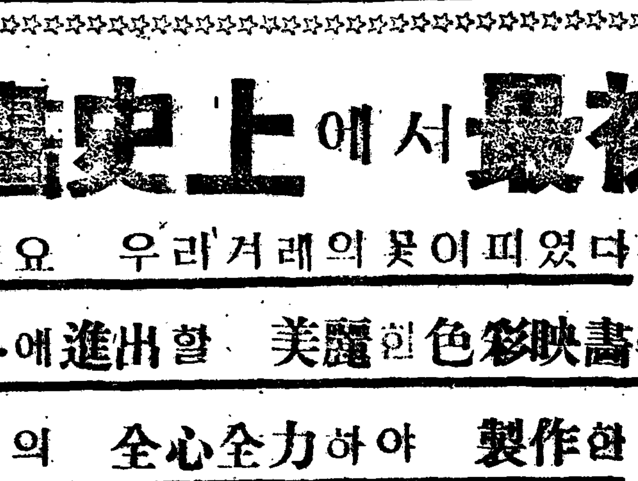
그러고서 샘꾸러기는청구하였읍니다。

『성인께서는 ᄌ저의눈을한쪽만터져 무ᄌ려 ᄀ게하여 주십시요。그러고 저의동무는 양쪽눈이 다보이질 않는장님이 되어서 저의 두배 고생하게 하여주십시요』

약속한대로 성인은곧한눈는 장님이 되게하였읍니다。

이두사람은 가엽사찌였다고 생각해서는 아니됩니다。그들은 참으로저독한 나 놈들이었읍니다。이것이 철벌(天罰)이라고하는것이 [illegible]지요。

어린이



우리映畫史上에서最初로우리의손으로製作된總天然色康映畫!!

우리民族의자랑이요 우리겨레의꽃이피였다

世界映書界에進出할 美麗한色彩映書!!

우리映書製作陣들의 全心全力하야 製作한

精銳篇을누구 나 다ー빠짐없이보시라

華麗한彩色映畫!! 에달픈過去를갖은一女性의이야기!!

女性日記

前衛映畫社苦心苦闘第1回超特作品

製作完成

乞期待 封切迫到

演出……洪性麒
撮影……金榮舜
錄音……梁桂南
照明……咸完燮
美術……申相玉
音樂……趙白峰

카스트 池在昌 朱文魯 宋雪三 李吉子 黃貞順 李光男 黃彭

外數十名